

2025-2 글말교실 글말특강 7회차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한유진(교양대학)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번역이란?

- 한 언어의 의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
- 텍스트가 한 문화, 한 담론,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 전체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번역의 종류

- 한국어 → 영어, 영어 → 한국어
- 구술(음성언어) → 문자언어
- 방언(사투리) → 표준어
- 긴 텍스트 → 짧은 텍스트 (요약)
- ⋮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AI 번역이란?

- AI가 텍스트를 **변환**하는 것

→ AI가 텍스트를 다루는 모든 방식은 사실상 번역이다.

- AI는 입력한 문장을 **형태만 바꿔서 다시 출력함**
- AI는 의미를 만들지 않고 **패턴 예측 방식으로 텍스트를 재작성**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AI 번역이란?

- AI 요약 : 형태 변환
- AI 패러프레이징 (다르게 표현하기) : 문체 변환
- AI 리라이팅 : 담론 변환
- AI 문장 다듬기 : 레지스터 변환

→ 텍스트 생성이 아닌 변환, 번역



번역에서 발생하는 굴절을 동일하게 반복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굴절(refraction)이란?

-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빛이 이동할 때, 경계면에서 방향이 휘어지는 현상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번역에서의 굴절(refraction)이란?
 - 번역자가 속한 문화·규범·이데올로기에 의해 **방향이 조정**되고 **새롭게 재초점화**되는 현상

→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Source Text)에 대한 단순한 반영/반사(reflection)가 아닌 **굴절**이다. 출발어 텍스트 문화가 또 다른 **도착어 텍스트(Target Text)** 문화에 수용되어 **재초점되는 조정 과정**이다.” - 르페브르(Lefevere)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AI 번역에서의 굴절

- 원문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평균적인 형태'로 재구성



이 과정에서 **의미의 방향 변화**, 즉 **굴절** 발생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AI 굴절 발생 이유 – 기술적 원인

- AI는 의미 모델이 아닌 언어 모델
- AI는 패턴 평균화로 작동
- AI는 논증 구조가 아닌 확률적 연쇄로 이해
- AI는 언어적 변환(문장 변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 AI는 정보의 명료성을 우선 순위로 설계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AI 굴절 사례

- 대상 작품 : <아랑> 설화
- 구술 텍스트 → 표준어 변환 텍스트 → 영어 번역 텍스트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한국 귀신 서사의 특징

- 귀신은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 등장
- 억울함이 풀리면, 진실이 밝혀지면 해원
→ 귀신의 억울함에 응답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할 때 해결
- 죽은 후에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 반영
-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 사회적 억압과 윤리적 결함을 고발하는 존재로 기능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아랑의 설원>

아랑의 부친 윤부사가 서울에서 밀양으로 부임해왔다. 이듬해 통인은 아랑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그녀의 유모를 매수한다. 유모는 아랑에게 영남루 구경을 나가자고 하였고, 곧 아랑을 영남루에 남겨둔 채 사라진다. 홀로 남은 아랑 앞에 통인이 나타나 겁탈을 시도했고, 아랑이 거세게 저항하자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대숲에 버린다. 아랑의 실종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고, 밀양 부사는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 이후 새로 부임하는 부사들이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잇달아 죽는 일이 발생하자, 아무도 밀양 부사로 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부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 사람이 자원하여 밀양에 부사로 부임한다. 그 첫날 밤, 아랑의 원혼이 부사 앞에 나타나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부사는 아랑의 지시대로 범인을 찾아 징치하고, 대숲에 버려진 시신을 수습한다.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텍스트 원본 - <아랑의 설원> (구연자 : 박재전)

윤 부사가 인자 그 서울서 밀양을 인자 부사로 내리와 가지고 육 년을다 못 채아서(채워서), 임기가 육 년인데, 한 삼 년
쯤이나, 아, 여 여 아 참 삼 년이 아이고(아니고), 내리와 가지고 그 이듬해라 카더라. 그 이듬해.

윤 부사 딸이 있었는데, 그 여 윤 부사 딸이 영남루, 영남루 인자 말은 들었다 말이지. 말은 들었는데, 영남루 구경을 언제
나 함 (한 번) 했으며, 했으며 이래 장 생각하고 있다 말이지. 있는데, 그리이(그러니) 윤 부사 딸이 인물이 잘났어. 잘났
는데, 그 윤, 어 윤 부사 던고(데리고) 땡기는(다니는) 그 통인이 말이지, 통인 카든 인자 요새 말로 인자 비서, 비서 한 가
지지. 그 통인 카든 언제라도 어른은 안 되고 총각이라. 인자 총, 총각을 갖다가 인자 통인을 세아 가지고 장 인자 던고 땡
기는데.

이 통인이 그 윤부사 딸로 보이끼네 마 어찌 탐이 나는지, 인자 그 인자 그 윤 부사 딸로 함 유인해 어데 나와야 뭐로 그
지 소망대로 이래 함해 볼 낀데, 다시(도무지) 그 던고 나올 수가 있나. 거기(그게) 인자 그 윤 부사 딸, 윤 부사 딸이 즉
말하든 요셋말로 아 아랑이라, 아랭이.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5%84%EB%9E%91%EC%9D%98%20%EC%84%A4%EC%9B%90&id=POKS.GUBI.GUBI.1_13510&pageUnit=20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구술 텍스트 → 표준어 변환 과정

박재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보자. 일단 텍스트 줄테니까 빠뜨리지 말고 이걸 표준어로 번역해. 그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절차를 정확히 따르겠습니다:

- 1 선생님에 주시는 박재전 이본 원문 →
- 2 내용 빠뜨리지 않고 표준어로 변환 →
- 3 그 표준어 텍스트를 다시 영어로 번역

※ 이 과정에서는 요약·삭제 없이 원문 재현에 집중합니다.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구술 텍스트 → 표준어 변환 과정

<아랑의 설원>(박재전, 경남 밀양, 8-7, 1981)

윤 부사가 인자 그 서울서 밀양을 인자 부사로 내리와 가지고 육 년을 다 못 채아서(채워서), 임기가 육 년인데, 한 삼 년쯤이나, 아, 여 여 아 참 삼 년이 아이고(아니고), 내리와 가지고 그 이듬해라 카더라. 그 이듬해.

윤 부사 딸이 있었는데, 그 여 윤 부사 딸이 영남루, 영남루 인자 말은 들었다 말이지. 말은 들었는데, 영남루 구경을 언제나 함 (한 번) 했으며, 했으며 이래 장 생각하고 있다 말이지. 있는데, 그리이(그러니) 윤 부사 딸이 인물이 잘났어. 잘났는데, 그 윤, 어 윤 부사 던고(데리고) 땡기는(다니는) 그 통인이 말이지, 통인 카문 인자 요새 말로 인자 비서, 비서 한 가지지. 그 통인 카문 언제라도 어른은 안 되고 총객이라. 인자 총, 총각을 갖다가 인자 통인을 세아 가지고 장 인자 던고 땡기는 데.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구술 텍스트 → 표준어 변환 과정

1 표준어 변환

『아랑의 설원』 (박재전, 경남 밀양, 1981)

윤 부사가 서울에서 밀양 부사로 부임해 내려왔는데, 임기가 6년이었으나 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듬해의 일이다. 윤 부사에게는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영남루에 대해 말로만 들었을 뿐, 한번도 구경을 하지 못해 늘 한번 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윤 부사 딸은 인물이 출중하였다. 윤 부사와 함께 다니는 통인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비서와 같은 사람이다. 통인은 총각으로 어른은 아니고 하급 관리였다. 이 통인이 윤 부사 딸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 어떻게든 그 딸을 유인해서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으나, 쉽게 밖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윤 부사 딸이 바로 아랑이다.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표준어 변환 서사

- 방언이 표준어로 변화

밀양 방언	[원문]	[표준어 변환]
극존칭 서술형 어미 '니더'	- 인자 참 설원을 하게 됐^으니^더. - 저는 죽은 구신이^으올시^더. - 그 원한 좀 품^어 줄라고(달라^고) 그래 왔^으니^더. - 그 윤 부사 따 딸이^으올시^더. - 대밭 속에 열^어났^으니^더.	- 설원을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죽은 귀신입니다. - 원한을 풀어 달라고 왔습니다. - 윤 부사의 딸이었습니다. - 대밭 속에 시체를 묻었습니다.
목적격 조사 '-로'	- 통인이 그 윤부사 딸로 보이^니 끼네 - 이^거로 죽이 가지^고	- 통일이 윤부사 딸을 보고 - 이 아이를 죽이고
아직	아 ^직	아침
드가다	대밭 속에 드 ^가 가	대밭 속에 들어 ^가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표준어 변환 서사

- 핵심 정보만 요약

[원문] 윤 부사가 인자 그 서울서 밀양을 인자 부사로 내리와 가지고 육 년
을다 못 채아서(채워서), 임기가 육 년인데, 한 삼 년쯤이나, 아, 여 여 아 참 삼
년이 아이고(아니고), 내리와 가지고 그 이듬해라 카더라. 그 이듬해.

[표준어 변환] 윤 부사가 서울에서 밀양 부사로 부임해 내려왔는데, 임기가
6년이었으나 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듬해의 일이다.

➔ 텍스트 접근성 증가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표준어 변환 시 굴절 - 서사적 맥락 축소, 시간 정보로 처리

[원문] 한날 저녁에는 그 달이 환하이 그 밝을 때라. 그래 인자 그 아랑 유모 되는 사람이 아랑을 인자 덴고 영남루 구경 가자꼬, 쳐 처녀가 그 나, 낮으로는 인자 그 놀러 못 나오고, 저녁으로, 인자 다 그 사람들 모도(모두) 초저녁에 놀다가 가고 나서 이숙한 녀(때)에, 유모 되는 사람이 인자 그 아랑을 던고 영남루 인자 놀러 간다꼬 떡 올라갔다. 올라가이(가니), 그 참 이거 규중 처녀가 영남루 그 달 밝은 데 올라와 보이 참 좋은 기라.

[표준어 변환] 아랑의 유모는 아랑에게 영남루로 놀러 나가자며 계속 권유하였다. 어느 저녁, 달이 환히 밝은 날이었다. 아랑의 유모는 아랑을 데리고 영남루 구경을 가자고 하여, 저녁 늦게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함께 올라갔다. 규중 처녀였던 아랑은 달 밝은 영남루에 올라가서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구경을 하였다.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표준어 텍스트 → 영어 번역 과정

2 영어 번역

***Arang's Story of the Snow Field* (Collected by Park Jae-Jeon, Miryang, Gyeongnam, 1981)**

Yun, appointed as the magistrate of Miryang from Seoul, had a six-year term but did not complete it, and this incident occurred in the following year. The magistrate Yun had a daughter who had only heard of Yeongnamnu but had never visited and always wanted to see it someday. The daughter was remarkably beautiful.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영어 번역 시 굴절

[표준어 변환] 어느 저녁, 달이 환히 밝은 날이었다. 아랑의 유모는 아랑을 데리고 영남루 구경을 가자고 하여, 저녁 늦게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함께 올라갔다. 규중 처녀였던 아랑은 달 밝은 영남루에 올라가서 구석구석을 둘러 보며 구경을 하였다. 그런데 유모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가 없었다.

[영어 번역] One night, under the bright full moon, after most people had left, the nanny took Arang to Yeongnamnu for sightseeing. Being a sheltered maiden, Arang found the moonlit pavilion enchanting and strolled around. At some point, the nanny disappeared without a trace.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영어 번역 시 굴절 : **규중처녀** → sheltered maiden
 - 규중처녀(閨中處女)는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처녀(사전적 의미)
 - 생활권이 집안으로 통제된 **상층 미혼여성**(문화적 맥락)
 - **가부장적 규범을 상징**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영어 번역 시 굴절 : 규중처녀 → **sheltered maiden**

'sheltered maiden'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어려움이나 현실로부터 보호받으며 자란 순진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여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 **sheltered**: 외부의 고통, 위험, 삶의 시련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 **maiden**: 미혼의 젊은 여성, 처녀

따라서 ****'sheltered maiden'****은

- 👉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 👉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온,
- 👉 사랑이나 삶의 고통에 대해 미숙한

그런 순진한 아가씨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 이 표현은 서구 문학이나 로맨스 장르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영어 번역 시 굴절 : **규중처녀** → **sheltered maiden**
 - 여성인물의 사회문화적 위치성이 반영되지 않음
 - 서구 문학에서 전형화된 여성상으로 치환



아랑이 원혼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서사적 맥락 삭제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영어 번역 시 굴절

[표준어 변환] 그 뒤로 후임 부사들이 부임하면 도입하는 첫날 밤마다 반드시 죽었다.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계속 부임 첫날 밤에 죽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소문이 퍼져 밀양부사로 갈 사람이 없었다.

[영어 번역] Afterwards, every magistrate who was newly appointed to Miryang mysteriously died on the first night of duty. This happened repeatedly, and rumors spread to Seoul, leaving no one willing to take the post.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영어 번역 시 굴절 : 반복적 죽음 → mysteriously died
-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이 있는 필연적 사건

[원문] 그 뒤에 인자 후임으로 오는 저 밀양 부사가 말이지, 오면 그 도입하는 그 날 밤중에 마 반드시 죽는 기라. 사램이 죽어, 죽었어. 그래 한 사람 그래. 두 사람이 그래. 몇 사람이 인자 여어 밀양 부사로 와가서는(와서는) 마 도입하는 그 날 밤에는 반드시 죽어. 죽는데. 그래 서울서 가만, 이거 여어여어 소문이 나가서는(나서는) 밀양부사 갈사램이 없는 기라.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영어 번역 시 굴절 : 반복적 죽음 → mysteriously died
 - 윤리적 책임과 인과적 논리가 삭제
 - 말해지지 못한 자의 목소리, 응답해야 하는 자의 공적 책임, 책임을 회피한 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라는 서사적 논리 층위 비가시화
 - 귀신은 억울한 존재가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치환
 - 반복된 죽음은 기이한 현상으로 전유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쓰기의 차원
- 자료 활용의 차원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글쓰기에서의 문제

- 의미의 삭제(축소) - 구체성, 맥락, 발화 구조의 손실
- 의미의 과잉(확대) - 원문 이상의 추상화, 개념의 일반화, 장르적 재배치

➡ 원래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AI가 학습한 평균적 패턴의 방향**
으로 재구성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자료 활용의 문제 : 논문 요약의 문제점
 - 문제 설정의 충위가 삭제되고 설명형으로 제시
 - 근거가 삭제되고 결론 중심으로 재구성
 - 분석 절차(방법론)의 삭제
 - 논문의 비판적 관점이 평균적 설명으로 대체

➡ 평균적인 설명문으로 재구성

AI 번역의 굴절, 글쓰기에서의 과제

- 글쓰기에서 AI,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AI가 할 수 없는 층위를 직접 보완
 - 논리 구조는 직접 설계
 - AI가 만든 문장은 그대로 쓰지 말고 반드시 검토
 - 문제의식, 핵심개념 정의, 연구목적, 연구의 의의는 직접 서술